

자리에 맞는 옷과 걸맞는 예우

글 | 이은용 충남대 교수

요사이 이공계 기피 현상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다. 직업분류에서는 교육자로 분류되는 이공계 교수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사회 참여 기회가 극히 적으며 교육계에서마저 대우받을 기회가 적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니 현장 기술자나 전문가는 얼마나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 기피할 수밖에... 이 즈음에서 내가 공학분야를 평생 일터로 택하게 된 사유를 되돌아보고 상황이 변한 이 시대에 교훈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나는 50~60년대 충남 당진에서 초·중교를 다녔는데 전기 사용이 되지 않아 등잔불로 공부를 해야했고, 석유를 아껴야 했으므로 그것조차 마음껏 사용치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딛고 중학교 개교 이래 첫 대전고 합격생이 되었다. 2학년으로 승급하면서 이과를 택했다. 그 이유는 장래 이공계의 사회적 예우나 삶의 질, 일의 보람과 성취 등을 꼼꼼히 살필 성숙함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 때문이었다.

배경 없고 가난한 농촌 출신인 나는 거짓말하고도 잘 넘어가는 정치인 직업도 있고, 목에 힘주는 판·검사 직업도 있으며, 돈벌고 대우받는 의사 직업도 있고, 인기를 몰고 다니는 예체능계도 있다는 것을 보려하지 않고, 앞으로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세파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한 방향의 시각과 가슴속에 한이 되어 자리 잡고 있는 등잔불 밑에서 공부하던 불편을 없애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기공학을 선택하여 대학을 들어간 것이다.

대학에서 생존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당시취업이 잘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선택했던 전기공학 분야도 취업 자리가 없었다. 취업이 안되어 논다는 것을 상상조차 안 했던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문대학 교단을 택하게 되었다. 막상 교단에서 보니깐 더 많이 배워야만 하였

고 그래서 석사 과정을 거쳤으며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니 4년제 대학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은 대학 교수에 맞는 옷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다시 박사 과정을 하여야만 했으며,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현장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을 아예 접어버리고 30여년 동안 교수로서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부터 공학을 전공하여 기술인으로서 한 길을 걸어온 친구들의 자조섞인 이야기와 심심찮게 들려 마음에 걸린다. 집이 서울이고 근무처는 지방인 다른 친구, 중전기 회사 전무는 집주인은 마누라이고 자신은 손님인 것 같아 늘 가족들에게 미안하였는데, 요즘은 직장을 떠나 집에 있는 대부분의 동년배들에게 아직까지 자리 지키고 있는 미안한 마음 하나를 더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오직 앞만 보고 일에 미쳐 살아온 이공계 출신 기술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자괴심 속에서 살고 있고, 기술고시 출신 공무원은 승진이 늦을 뿐 아니라 자리까지 제한되어 기회도 없으며, 한 우물만 판 이공계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조직에서는 사회 과학 뒤쪽에 줄 서야하며, 산업 현장만 떠돌다 보면 생활의 안정과 정서적 윤택을 누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어제 오늘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쌓이고 커진 것인데 빨리 대처하지 않고 미루어 온 것을 지금도 방치한다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더욱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나는 상대적 빈곤 해결이 최우선 과제의 시대에서 사느라 이공계와 다른 분야를 비교할 여유도 없었고, 민생고 해결과 산업 신장 과정에 살았기 때문에 할 일도 많아서 분수에 맞는 옷을 맞춰 입지 않고도 얻은 자리에 아직도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나는 전기공학을 선택한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거나 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살았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가 발전을 늦추지 않으려면 산업이 계속 신장되어야만 하고 그러려면 내가 출발하던 60년대에서처럼 같은 세대에서 유능한 인재가 선뜻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산업역군에 맞는 옷을 입히고 걸맞게 예우하는 제도와 여건을 시급히 조성하여야 하겠다.